

우리나라의  
실업교육이념에 관한 연구

緒論

연구의 必要性 및 目的

우리나라의 實業教育 자체는 朝鮮末에 이르기까지의 實業賤視思想과 實業科目에 대한 國內의 인기와 政府의 政策的인 뒷받침에 따라 좌우되어 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實業教育이 이러한 시대와 國家의 일시적인 이념위에서 변화되어 왔다는 것은 實業教育理念이全體過程에 일괄되게 흐르지 못하고 마디마디 단

民主國家의 건전한 公民양성을 目標

李相培  
〈서울大 農大 교수〉

절되어 진행되어 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곧 특정한 實業教育의 이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워진다.

實業教育理念의 부재에 대한 요인을 좀 더 분석해보면 生活樣式이나 價値觀과는 일치하지 않고 文書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理念自體가 명확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실에 적응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또 우리의 實業教育이 당면한 문제중의 하나는 이식된 教育理念을 再評價하는 작업인데, 이것은 教育史的 背景을 고찰하여 봄으로써 가능해 질 것이다.

이에 實業理念이 나아갈 방향이 곧 實業教育의 이념이라고 규정지운다면, 理念形成은 教育을 둘러싸고 있는 그 國家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특성이 반영되어 창출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實業教育의 理念定立은 우리가 살고 있는 韓國的 教育理念의 전통아래 인간과 사회의

소망스러운 存在의 방식과 방향에 대한 所望體制라는 점에서 社會 각 분야의 專門家, 指導者들의 종합적 지혜가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實業教育理念 부재에서 발생한 혼란 및 현재의 實業教育理念에 대한 의문점에 답하기 위해 既存의 實業教育에서 전개된 教育의 생명과 정신을 파악하여 올바른 文化觀, 教育觀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國家發展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實業教育 이념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實業教育의 이념 변천과정에 대한 國內外의 연구를 고찰한 후 實業教育에 관한 學問의 배경 및 국가, 개인, 사회적 측면에서 구명한 實業教育의 당위성을 근거로 하여 未來社會에 대비한 實業教育 이념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의의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實業教育의 概念 究明, 甲午更張 이후의 實業教育理念의 변천과정 및 목표분석, 실업교육의 意義究明,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實業教育의 당위성을 究明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한 實業教育의 理念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研究의 方法

이 연구에서는 實業教育關係 研究文獻 분석 및 教育理念關係 전문가와의 면접 및 협의, 그리고 전화번호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국의 實業系 高等學校를 가, 나, 다순으로 배열한 후 亂數表를 이용 30개 學校를 표집하여 教育目標에 관한 전화 조사를 통한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 實業教育의 概念과 歷史의 展開

### 實業教育의 概念

實業教育을 왜 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先決課題로 요구되는 것이 實業教育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것은 國內外에서 實業教育을 어떻게 定義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보다 명확한 개념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實業教育의 개념을 특징에 따라 분류해 보면 4가지 형태로 나누어 진다.

핍스, 宋海均, 李茂根, 金丁泰, UNESCO, 教育學辭典에서는 “學士資格 이하의 수준으로 취업 또는 產業分野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시킬 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教育”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에반스, 톰슨, 美國實業教育法, 國語大辭典에서는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소유한 유능한 인간을 만드는 教育”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스트릭, 호이트, 프로스와 알렌은 “成功的인 직업인이 되려고 쌓아가는 경험학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몬드, 美國實業教育協會, 朴相淳은 “일에 종사하거나 직업을 개선, 유지하는데 필요한 능력 개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實業教育에 대한 定義를 종합하여 개념을 정립해 본다면 “學士資格 以下の 수준으로 취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시킬 목적으로 靑少年들에게 베풀어지는 經驗教育으로 직업을 개선, 유지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길러주는 일을 위한, 일에 관한, 일을 통한 教育”이라고 할 수 있다.

### 實業教育目標의 史的 考察

教育目的이 教育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教育活動의 실제적인 내용을 선정하는 기본적 힘으로 작용한다고 볼 때 이제까지의 教育目標를 史的으로 고찰해 보는 것은 教育이 도달해야 할 결과, 즉 이념정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 解放以前의 實業教育目標 分析

解放以前의 實業教育目標를 1900년을 기점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94년 甲午更張을 분기점으로 하여 현재 우리 실생활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實業教育의 기초가 外國人에 의하여 움텃고 그 이전의 實業教育에서는 사실상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教育이란 거의 무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三國時代에는 職業教育에 관한 기록은 없었으

며 統一新羅時代에 와서야 職業教育인 雜科教育이 실시되었다.

高麗時代에 와서는 기술분야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고, 朝鮮時代의 鄉校에서는 농업과 잡업에 관한 實業教育에도 힘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朝鮮時代末까지는 교육의 목표가 官吏의 양성에 있었을 뿐이고 日常生活向上이나 산업의 발전에 직결되는 교육은 거의 없었다.

門戶開放 이후부터 1900년까지의 實業教育의 意義는 지금까지의 교육의 방향이 잘못된 人文中心의 教育에서부터 탈피하여 서구식 新教育, 즉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근로의 정신과 自立精神을 가르친 것을 들 수 있다.

1900년부터 韓日合邦이 되기 이전의 實業教育

의 특성은 學校라는 形式教育機關을 통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生計와 관련된 農, 商, 工의 知識機能을 획득케하고 근로에 대한 태도를 심어주는 방향으로 변해 왔다.

#### 解放以後의 實業教育目標

해방 이후의 우리나라의 教育課程은 教授要目の 시기를 거친뒤 다섯차례의 教育課程 制定 및 改定이 있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實業教育 目標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教授要目の 시기(1945.8.15~1954)의 實業教育은 農, 商, 工 및 水産등의 中等教育 분야에 중사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데 目標를 두었다.

系 列	一 般 目 標	細 部 目 標
農 業	農業經營 및 農業 關聯職에 종사할 수 있는 基本的 資質과 能力育成	① 농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 ② 근로의 존엄성, 성취감, 확고한 농업관, 근면한 덕성함양 ③ 능력과 여건에 맞는 농업직 선택
工 業	工業分野에서 담당할 工業 技術人으로서 資質과 能力育成	① 相關분야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 기술 습득 ② 相關분야의 生産활동 相關에 필요한 基本지식과 습득 ③ 公업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産業발전에 기여
商 業	商業 및 經營에 종사할 有能한 人才로서의 資質과 能力함양	① 上業 및 經營에 관한 基本적 지식과 기능 습득 ②  창의성 발휘 및 합리적이며 능률적인 經濟 生活를 할 수 있는 能力 함양 ③ 商業 및 經營의 重要性을 깨닫게 하고, 新념과  긍지를 지닌 職業人으로서의 國民經濟發展에 이바지
水 産 海 運	水産, 海運의 分野에 中추적인 役割을 담당할 技術인의 資質과 能力함양	① 知識과 技術 습득 및 水産 海運의 합리적 인 운영 및 船舶運航 能力育成 ② 水産業 발전 및 漁民福祉 향상에 先導적 役割 ③ 海運業의 重要성과 國家 産業 經濟와의 關係인식

1950년대 6·25사변시에는 實業教育의 본래 목적이 修學中 履修한 지식이나 기능을 통하여 實社會에서 자기 專門領域에 따라 生業에 종사시키는 일이라 하겠으나 戰時下에서 國防力を 강화하기 위한 人的資源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했던 당시의 특수사정에 비추어 實業學校의 중점은 技術者의 양성과 더불어 軍人으로서 科學技術을 갖춘 人間育成에 치중하였다.

第1次 教育課程期(1954~1963)에는 6·25終戰 이후의 특수한 사회환경속에서 各級學校에 기본이 되는 실업교육목표는 생산성 향상과 직업교육에의 도야에 강조점이 주어졌으며 實業科目을 통해 좀 더 生活를 풍부하게하며, 實踐이 있는 人間을 배양하도록 하였다.

第2次 教育課程期(1964~1974)에 있어서 實業教育의 일반목표는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고 유익한 지식과 유용한 기능 및 科學의 生活態度를 기르는데 직결되는 학습경험을 포함시킨다.”는데 두었다.

第3次 教育課程期(1975~1981)에는 中堅國民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專門教育의 특징과 全人教育學習이 실시되어졌으나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다만 現場學習, 綜合實習을 강화하여 理論知識에 치우치지 않는 實際的인 生産技能者를 기르도록 하는데 重點을 둔 것이 특징이었다.

第4次 教育課程期(1982~1988)에는 科學技術教育의 심화에 개정의 기본목표를 두었는데, 실업교육목표는 기초이론과 실습을 강화하여 인간교육을 강화하며 인격과 기술을 갖춘 技術人 양성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 實業系 高等學校 教育目標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產學協同을 통하여 實業系 高校 學生들의 學校안에서의 知識習得만이 아니고 現實社會에서의 적응력과 응용력의 양성을 권장하고 있으나 產業社會의 이해부족과 敎員들의 경직화된 보수적 教育哲學 때문에 별로 활발히 운영되지 못했다.

第5次 教育課程期(1988이후)에는 지식의 급격한 팽창과 科學의 발달에서 오는 高度産業化, 情報化時代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관계의 다

양한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며, 모든 國民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이전의 內容을 수정, 보완해 주는 목표가 <表-1>같이 설정되었다.

지금까지 논한 實業教育의 目標를 분석정리해 보면 <表-2>와 같이 요약되어 진다.

#### 文教政策 및 獎學方針에 나타난 實業教育理念

實業教育을 위한 광범위한 政策과 獎學方針에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된 교육법제정, 6·25동란, 經濟開發 5個年推進, 國民教育憲章을 기점으로 하여 문교정책 및 장학방침에 나타난 실업교육이념을 4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定礎期(1945~1949)에는 美國의 實用主義哲學에 바탕을 둔 생활중심, 경험중심의 교육사조에 영향을 받아 教育을 실천적으로 하여 공리공론에 떨어지지 말도록 하고 생활의 실제에 적합한 지식기능을 반복연습케 하여 應用自存케 하고, 근로를 애오하고 興業治産의 지조를 굳게 할 것을 강조하였다.

1949년 12월 教育法 公布를 통해 우리나라의 教育理念으로 “弘益人間的 理念”을 근본으로 하여 “勤儉勞作하고 務實力行하며 유능한 생산자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건실한 경제생활을 하게 한다”는 방침이 수립되었다.

初代 文敎部長官 安浩相은 전반적인 교육이 실천과 기능을 수반하지 않은 公理論에 흐르고 있는 점을 시정해 보려 하는 노력의 표현으로서 1人1技 教育을 권장하였다.

再建期(1950~1959)에는 技術教育(이른바 1人1技 教育)이 역시 장려되어 졌으며, 6·25동란으로 인해 파괴 소실된 國土위에 新生 大韓民國을 재건하여 영원한 번영을 누리게 하려면 精神面으로 추락된 도의를 양양하고 物質面으로 파탄된 생산을 진흥시켜 道義國家 生産國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民主道義教育과 勤勞精神에 투철하고 창의를 발휘하여 科學技術을 활용할 수 있는 實業生産教育에 치중하였다.

改革期(1960~1969) 초기에는 生産教育, 科學教育, 鄉土教育 등의 강화에 힘썼으며, 1962년부

時 期		目 標 分 析
解放以前	前期(1900以前)	實生活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근로와 역행의 정신과 습성 강조
	後期(1900~1945)	生計와 관련된 産業에 필요한 知識技能의 획득 및 근로에 대한 態度 高養
解放以後	前期(1946~1960)	産業 분야에 종사할 中堅技能技術者 양성
	中期(1961~1970)	理論과 實技에 치우치지 않는 실제적인 생산기능자 육성
	後期(1971~1988)	基礎 理論과 실습을 강화하여 인격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을 양성하여 産業發展에 기여

터 시작된 經濟開發 5年 計劃推進을 위한 教育的 支援의 필요에 부응한 조치로서 建設的·創意的 태도의 創意的 育成과 생활기술의 연마와 합리적 경제생활의 실무를 꾀하였다.

發展期(1970~1989)를 1970년대와 1980년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에는 개혁기에서부터 일관하여 강조된 科學技術教育, 產學協同推進, 實驗實習強化등 직업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重化學 工業時代에 대처할 유능한 生産의 技術人을 양성하는데 주력하였다.

1980년대에는 각자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여 인격을 완성하게 하고 民主市民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해 自主的인 生活能力을 배양하며, 國家發展을 위해 봉사하는 유능한 국민을 육성하기 위해 科學技術教育의 진흥에 역점을 두고 一人一技能개발, 農業自營人育成 등을 추진하였다.

### 各國의 實業教育 目標

教育은 經濟投資의 중요한 대상으로서, 또 개인발전의 한 요소로서의 社會政策의 한 장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社會 및 個人的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이 곧 教育의 기능이며 목표이다.

國內의 教育目標뿐만 아니라 세계 各國이 지향하는 教育目標를 분석하여 教育理念設定에 토대를 삼는 것이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各國의 實業教育目標를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서독, 말레이시아, 타

이등 모든 국가가 “個人的 잠재력 개발 및 社會에 부응하게 될 일반적 직업에 대비한 지식과 기능습득”에 강조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미국, 프랑스, 일본은 “生産의 生活에 필요한 基礎技能熟達 및 勤勞와 創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근로경험부여 및 노작활동의 신성시”에 중점을 두어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實業系 高等學校 教育目標 比較分析

우리나라 實業界 高等學校 30개교를 표집하여 教育目標를 比較분석한 결과는 〈圖-1〉과 같이 나타났다.

〈圖-1〉의 結果로 實業系 高等學校 教育目標를 分類해 보면 愛國人, 勉學人, 德性人, 健康人, 審美人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民主國家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國家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職業人, 스스로 공부하며 知識 探究力이 강한 勉學人, 禮節과 實力과 협동정신을 갖춘 德性人, 科學的인 기술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進취적인 科學技術人, 心身이 단련된 健康人,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심미인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實業教育의 學問的 基礎

實業教育이 어떠한 理論的 근거아래 실시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관점에서 이론을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實業教育을 學校에서 실시할때 가장 효

올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은 學校이외의 환경, 사회, 공장, 가정에서도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은 가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實業教育은 일반적인 職業에 필요한 職業生存技術, 職業種類에 따라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능력, 그리고 教養教育으로서 基礎能力 함양에 역점을 둠으로써 學生들이 學校教育을 통해 自身の 기회를 찾아내고 기회가 오면 그것을 충분히 이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과 기술과 생활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

셋째, 實業教育은 人間이 사회의 生産의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 자원과 자본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사회활동에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 활동할 수 있는 人的資源을 개발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넷째, 實業教育에 대한 투자가 높을수록 노동을 값비싸게 판매할 수 있어서 소득이 높고 사회·경제적 위치를 높게 유지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능력이나 동기유발에 상관이 높은 경향이 있다.

다섯째, 직업으로서의 산업은 모든 사람들에게 職業滿足이나 건강의 유지, 여가의 선용, 타인과 어울리는 사교나 활동등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점에서 개인이나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섯째, 대학등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靑少年들중 實業教育을 이수하여 숙련된 기능을 가진 경우는 취업이 용이하고 또 직장에 소속됨으로써 안정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어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家庭에도 충실하여 子女教育도 건실하게 할 수 있다.

일곱째, 高等學校 학생 年令이 되면 장차 自己 職業에 관한 의식이 발달되며 또 기술에 대한 숙련도 가장 빨리 향상되므로 이 年令層의 靑少年들에게 실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개인차에 따른 소질을 개발하고 직업상담과 함께 생활지도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學問的 側面的 實業系 학교의 교육은 靑少年들에게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켜 졸업후 곧 취업할 수 있으며 또 직업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교교육의 성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實業教育의 當爲性

實業教育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個人的, 社會的, 國家的 측면에서 실업교육의 의의를 구명해 봄으로써 정당화되어질 수 있다.

個人的 側面에서의 實業教育의 意義는 다음과 같다. 大學에 보면 “天子로부터 庶人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모두 몸담는 것으로서 根本을 삼는다.”고 하여 모든 일을 바로 개성을 발휘하고 自我를 실현하는 것을 本으로 한다는 뜻이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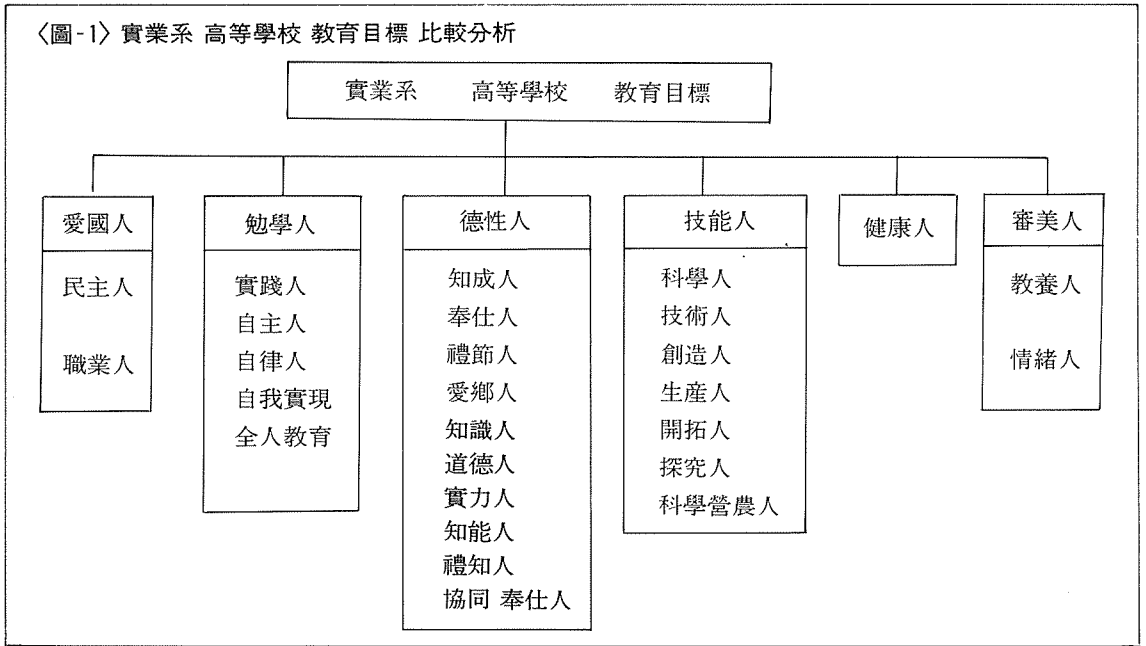
모든 사람은 욕망을 기고 있으며 스스로 충족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타인을 필요로 하며 社會構成員이 되고 分業과 협동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勞作的 人間으로서의 協同價値와 관련되며 각 개인이 자신의 지위에 부여된 의무들을 수행하려는 의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밖에도 實業教育은 勞作人, 創造人, 奉仕人, 開拓人, 技術人, 知識人, 勞動人, 生産人, 消費人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社會的 側面에서 직업은 생계유지수단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專門分野가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는 社會속에서 個個人이 맡아야 될 社會的 分擔과 역할을 통하여 서로 봉사하고 활동하면서 하나의 社會的 全體를 형성하고 다시 직업을 통해서 이와 같은 相互依存의 상태를 促進하는 일에 의해 이 社會의 存續發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研究의 結果를 간추려 보면 奉仕人, 役割分擔人, 誠實人, 協同人, 共同의 이익을 추구하는者, 敬愛人, 合理的 生活人을 육성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었다.

國家的 側面에서 實業教育의 意義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韓國에 있어서 國民教育의 목적은 韓國國民의 특색을 발휘하고, 韓國의 國家的 발전을 이룩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各個人이 自我를 완성하는 유일한 길은 國家에

〈圖-1〉 實業系 高等學校 教育目標 比較分析



奉仕하며, 國家를 향상 발전시킴으로써 自己와 國家가 하나가 되는데 있다. 또 國家를 위해 國民은 國家의 한 分子가 되고, 國家는 그 성격과 천명을 자각하고 의식적으로 教育을 통제하여 모든 國民의 子女가 가지고 있는 道德的, 知的, 身體的, 職業的 素質을 모두 國家를 위하여 충분히 발휘토록 해야 한다.

韓國에서 생활하는 者는 여하한 사람 일지라도 韓國의 國體를 존중하고 韓國의 國民道德을 받들고, 韓國國民의 고유한 성격을 길러서 널리 韓國文化에 동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同化는 國民全體에서 다같이 요구되는 것이며 개인의 직업이라든가, 또는 사회의 지위에 의하여 조금도 다를 수가 없다.

研究의 結果 國家發展에 이바지 하는 者, 奉仕人을 육성하는데 意義가 있었다.

### 要約 및 結論

#### 要約

이 研究의 목적은 實業教育의 概念定立, 目標考察, 文教政策에 나타난 실업교육의 이념 고찰,

各國의 실업교육목표분석, 實業系 高等學校 教育 목표비교 분석, 實業教育의 학문적 기초, 實業教育에 관한 당위성 구명을 통하여 우리나라 實業教育의 이념을 정립하는데 있었다.

이와 같은 研究目的을 달성하기 위해 實業教育 理念과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였고, 實業系 高等學校 30개교를 대상으로 教育目標에 대한 電話調查를 실시하였다. 標集對象은 제주도를 포함한 全國의 實業系 高等學校를 母集團으로 하였다. 표집방법은 實業系 高等學校를 가, 나, 다순으로 배열한 후 亂數表를 이용하여 차례대로 N=30이 될때까지 표본추출을 하였다. 선정된 學校는 農高 10개교, 工高 7개교, 商高 8개교, 綜高 5개교였다.

이 研究의 結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實業教育은 學士資格이하의 수준으로 취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시킬 목적으로 靑少年들에게 베풀어지는 경험교육으로서 직업을 개선, 유지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길러주는 일을 위한, 일에 관한, 일을 통한 教育이다.

② 이제까지의 實業教育目標를 해방을 기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解放以前에는 실생활과 직접

적이고 밀접한 근로와 역행의 정신과 습성을 강조하였고 생계와 관련된 産業에 지식기능의 획득 및 근로에 대한 態度高養에 중점을 두었다.

解放以後에는 産業分野에 종사할 중견기능기술자 양성, 이론과 실기에 치우치지 않는 실제적인 생산기능자 육성, 기초이론과 실습을 강화하여 인격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을 양성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인간육성이 강조되었다.

③ 文教方針에 나타난 實業教育理念을 종합해보면 현실생활을 유지, 개선해 나가기 위한 實業教育과 과학화, 고도화, 분업화, 전문화되어지는 미래 산업사회에 대비한 科學技術教育이 한층 더 강조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各國의 實業教育 目標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調查對象國인 영국, 미국, 프랑스, 日本, 서독, 말레이시아, 타이 등 모든 國家가 개인의 잠재력 개발 및 사회에 부응하게 될 일반적 직업에 대한 知識과 技能習得, 生産的 生活에 필요한 기초기능숙달, 産業社會의 특성경험, 勤勞와 創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勤勞經驗賦與 및 노작활동의 神聖視 등에 實業教育의 의의를 두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우리나라의 實業系 高等學校를 대상으로 교육목표를 조사분석한 결과 廣意로는 愛國人, 勉學人, 德性人, 技能人, 健康人, 審美人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狹意로는 民主國家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國家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업인, 스스로 공부하며 지식 탐구력이 강한 勉學人, 禮節과 실력을 갖춘 德性人, 科學的인 기술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진취적인 科學技術人, 心身이 단련된 健康人, 人生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審美人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實業教育이 어떠한 理論的 근거아래 실시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실업교육의 학문적 기초를 고찰해 본 結果 靑少年들에게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켜 卒業後 곧 취업할 수 있으며 職業發達을 할 수 있도록 하는 終局教育의 성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⑦ 實業教育은 個人的 측면에서 適性と 能力에 맞는 직업을 통해 成就感을 만끽하고 이를 곧 자

我實現으로 연결지으며, 창조하고 개척하는 知識과 技術을 고루 갖춘 생산, 소비인을 기른다는데 커다란 意義가 있었다.

社會的 측면에서는 사회에 봉사하고, 역할분담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며 협동할 줄 알며, 敬愛와 信義에 바탕을 두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合理的 生活人을 육성하는데 있었다.

國家的 측면에서는 個人과 社會와 國家가 하나라는 일체감을 가지고 國家發展을 위해 헌신하는 인간을 육성한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 結 論

이 研究를 통해서 발견된 사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結論을 맺는다.

實業教育 理念은 教育理念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구성인자이며 實業教育의 개념, 目標, 政府의 방침, 學問的 기초, 정당성 등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實業教育理念에 대해 未來社會의 특성(문교부, 1990년대에 사회에 대한 전망과 社會에 적합한 人間象)을 반영하여 정의를 내려보면 다음과 같다.

① 弘益人間의 建國理念에 기하여 인격이 완전하고 愛國精神이 투철한 民主國家의 公民을 양성을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한다.

② 實踐窮行, 勤勞力作, 務實力行, 勤儉勞作의 精神을 강조하고 充實한 責任感과 公德心을 발휘한다.

③ 基礎理論과 實習教育을 통해 인격과 기술을 갖춘 技術人을 양성하여 생산발달에 기여한다.

④ 社會에 부응하게 될 일반적 직업에 대비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고 잠재력을 개발시킨다.

⑤ 實務教育을 통해 愛國人, 勉學人, 德性人, 技能人, 健康人, 審美人으로 육성한다.

이 글은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22권 제1호에 게재, 「우리 나라 실업교육이념에 관한 연구」란 제목으로 서울대 농대 이상배·이용환교수가 공동연구한 것을 전재한 것임. .... <편집자 주>